

## [알리는 말씀]

- \*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따른 안내를 드립니다.
  1. 예배 전, 후 그리고 예배 중 마스크 착용은 자율로 합니다.
  2. 사회자와 성경봉독자는 가급적 마스크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3. 음료와 간단한 간식은 드실 수 있습니다.(여성가족재단과 확인함)
  4. 코로나 확진 또는 의심이 되는 경우 재택 온라인 예배를 권고합니다.
- \* 오늘 간단한 다과 후 설교복기 시간이 있습니다.
- \* 매월 첫주 정목사님과 식사모임 안내
  - 2월: 목사님들 가족 / 3월: 예배위원들(예배준비,사회자,성경봉독,반주자)
  - 4월: 전 교우
- \* 지난주일(1월1일) 헌금: 435,000원(주일헌금 165,000원, 통장헌금 270,000원)
  - 교회 온라인 통장: 카카오뱅크 3333-14-2466417 박수진
- \* 2월 예배 위원

날짜	설교	사회/ 성경봉독	헌금/안내	준비위원/장소
2월5일	정용섭목사	최선아(사회) 박수진(봉독)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이기령,박정덕 /시청각실
2월12일	이춘우목사	이기령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이기령,오미영 /아트컬리지5
2월19일	박재진목사	이유선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양혜선,김희란 /아트컬리지5
2월26일	김동호목사	고중흥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양혜선,이유선 /아트컬리지5

2023년 1월 재정보고				
수입			지출	
주일헌금	2주	255,000	감사비	1,200,000
	3주	80,000	대관비	380,160
	5주	165,000	주보비	30,000
			교육비	40,000
			구제비(재움누리학교, 부산장애우)	250,000
통장헌금		1,430,000	선교비(뉴스앤조이, 새물결플러스)	100,000
선교헌금		100,000	간식비	81,300
이자		2,324	물품비(성찬식물품, 스톱)	119,180
			다비아샘터교회헌금	500,000
수입계		2,032,324	지출계	2,700,640
* 수입 - 지출		( - 668,316	전월이월액:	17,067,943
			현 잔액:	16,399,627

## 서울샘터 교회주보

시작일 2008년 12월7일

2023년 2월5일

주현절 다섯째 주일  
세계 교회력 「가」해 11주



제목: 빛나다(shine)/ 화가: 모이어스( Moyers, Mike), 미국, 2013년 작품/  
초기 그리스도교 때부터 교회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상의 빛'(마 5:14)으로 보았다. 오늘 한국교회는 세상을 밝히는가, 어둡게 하는가, 아예 상관이 없다.  
(반더빌트대학교 신학대학 도서관 사이트에서 퍼옴)

예배 장소: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53(대방동)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5  
주일 공동예배: 4시-5시/친교 5시-5시20분/설교복기 5시20분-6시  
목사: 정용섭, 박재진, 이춘우, 김동호  
홈페이지: <http://dabia.net/x/churchs>

# 주 일 공 동 예 배 순 서

## 개 회 예 전

예배의 부름 ... 사회자 (최선아 집사)

언젠가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더 크고 완전한 생명인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에 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이후의 미래를 기다리면서 지금 여기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찬송 41장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시오. 하나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의 원천이시며, 궁극적인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생명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생명을 이 세상에서 충만하게 살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제대로 알아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팔로 굳건히 붙들어 주소시오.

십자가 처형의 운명을 받아들이심으로써 우리가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임마누엘' 신앙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으며, 세상 마지막 때 우리와 만물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 (영광송) ... 다 함께



분할례 ... 다 함께

집례자: 우리가 이 빵을 떼서 서로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되는 거룩한 친교입니다.

회중: 아멘.

집례자: 우리가 이 포도주를 서로 나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룩한 친교입니다.

회중: 아멘.

간구기도 (하나님의 어린양) ... 다 함께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풀어주소시오.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허락해주소시오.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주소시오.

성찬참여

집례자: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제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회중: 아멘.

[집례자의 안내에 따라서 빵과 포도주를 받는다.]

감사기도 ... 집례자

감사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 (시므온의 노래) 3회 ... 다 함께



알림 ... 사회자

## 파 송 예 전

\*마침 찬송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 성 찬 예 전

성찬찬송 233장 (자비로 그 몸 찢기시고) … 다 함께

준비기원

집례자: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땅과 인간 노동의 열매로 허락하신  
이 빵이 곧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회중: 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집례자: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와 인간 노동의 열매로  
허락하신 이 포도주가 영원히 하늘나라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회중: 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집례자: 들판의 밀알이 변하여 빵이 되고, 포도밭의 포도송이가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회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기를! 아멘.

인사나눔

집례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계십니다.

집례자: 주님을 향해 마음을 드높입니다.

회중: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높입니다.

성령임재 기도 … 집례자

성찬 제정사

집례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손에 들어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또한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들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전 11:23-2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중: 아멘.

집례자: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 행위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구원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회중: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으며,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아멘!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과 우상을 섬길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놓  
은 제도와 돈과 이념에 예속되어 갑니다.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을  
사람에게 요구하거나 기대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일상을 영적으로 풍요롭게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개인 참회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 다 함께

\*사죄 선포

목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저는 이 말씀과 지난 2천 년 예배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아뢰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웃의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거룩 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상투스) … 다 함께



\*평화 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찬송 459장 (누가 주를 따라) … 다 함께

## 말 씬 예 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빛이여 있어라.”라는 명령으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혼란과 어두움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밝혀주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읽는 이와 설교하는 이와 듣는 우리 모두/ 진리의 영에 힘써이게 이끌어주십시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말씀 이사야 58:1~9(전) ... 박수진 집사

성시교독 시편 112:1~10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 다 함께

할렐루야 복되여라 주하나님 경외하여/ 주신계명 새기면서 항상기뻐 하는사람  
-후손마다 번성해서 존경받는 사람되니/ 정직한자 후손들은 큰축복을 받으리라  
집안에는 좋은일이 끊임없이 넘쳐나서/ 그의행실 의로움이 길이길이 증명되리  
-그마음이 자비롭고 그행실이 의로운이/ 온사방이 어두워도 밝은빛이 비추이네  
인심좋고 너그러워 빌려주기 좋아하며/ 모든일을 분명하고 정의롭게 하는사람  
-이런사람 굳건해서 흔들림이 없으리라/ 길이길이 의롭다고 모두에게 기억되리  
주하나님 믿음으로 그마음이 든든해서/ 어려운일 온다해도 눈도꿈쩍 앓으리라  
-마음심지 단단하여 두려움이 없으므로/ 마침내는 원수패망 두눈으로 볼것이며  
가진것은 나눠주고 선한행실 끝없으니/ 사람마다 그를보며 영화롭다 말한다네  
-이들보고 한탄하는 악인들의 모든욕망/ 허망하게 무너지며 먼지처럼 사라지리

둘째말씀 고린도전서 2:1~12 ... 박수진 집사

\*셋째말씀 마태복음 5:13~20 ... 박수진 집사

\*응답찬송 644장 (아멘) ... 다 함께



설교 천국 윤리 ... 정용섭 목사

설교후 기도 ... 설교자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 다 함께

## 봉 헌 예 전

신앙고백 니케아신조 ... 다 함께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 그리고 세상의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빛에서 나신 빛 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지음 받지 않고 나셨으며, 성부와 본질이 같으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묻히셨으나, 성서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에게서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헌금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1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